

# 멕시코, 범죄로 인해 대규모 경제적 손실 초래

(2014. 5. 19)

멕시코시티사무소

## 1. 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 165억 달러 육박

- 멕시코 통계청(INEGI)은 '13년 멕시코 내 범죄 발생으로 인해 초래된 경제적 손실이 165억 달러(2,150억 페소)에 이른다는 조사결과 발표
- 이는 '13년 멕시코 GDP의 약 1.34%에 해당하는 액수로, 치안 불안과 범죄로 인해 폐업한 사업장이 늘어나고 투자 및 소비 감소 초래

## 2. 정부 범죄율 감소 발표에도 국민 불안감 지속

- 멕시코 행정안전부는 “멕시코 내 범죄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것이 사실이나, 현재 Michoacan, La Laguna, Monterrey 등 다수의 지역에서 범죄율이 감소 중”이라고 발표
- 이와 같은 정부 주장에도 불구하고, 다수의 멕시코 국민들은 범죄 발생 관련 높은 불안감을 호소
  - '13년 멕시코 정부 설문조사에서 18세 이상 성인의 70%가 치안이 불안하다고 응답
  - 타마울리파스주 등 일부 멕시코 동북부 국경지대에는 경찰력으로는 치안확보가 불가능해 군대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